

‘2022 영암왕인문화축제’ 전면 취소

영암군, 군민 건강·안전 최우선 하는 중대한 결정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지역축제 비상체제 가동



영암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2022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취소했다고 7월29일 밝혔다.

매년 4월 초 개최되는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지역축제 기본 지침에 따라 가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었다.

하지만 최근 완화된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 다시 오면서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2022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라며, “앞으로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즐길 수 있게 구성하여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영암군의 모습이 담긴 축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우영우로 뜬 ‘팽나무’, 함평에도 있다

천연기념물 제108호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 ‘관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주요 장면이 된 ‘소득동 팽나무’까지 재조명받고 있는데,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1962년 천연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된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948-2)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2016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은 줄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줄나무는 길가나 도로변에 줄처럼 길게 심어져 가로수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줄나무는 함평 향교리와 무안 청전리, 두 곳 뿐이다.

14,917㎡(4,512평) 면적에 팽나무 10그루, 느티나무 15그루, 개서어나무 52그루와 푸조나무, 곰솔나무, 회화나무 각 1그루가 있으며, 이



들 나무의 나이는 대략 350살 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은 향교 유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하여 ‘향교 숲길’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화재청은 “선조들이 자연을 이겨낸 지혜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자료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흑산도항 내 양식시설 본격 철거

기능 개선 및 청정어항 조성 도모

흑산도항은 서남해권의 영해 관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서 항만시설 개선으로 영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주변 순환형 관광여건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13년도 국가관리연안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7호)에 반영되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흑산도항 내 일부 수면에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년동안 양식업권(전복, 다시마)을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국가어항 지정 및 흑산도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양식행위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규정으로 양식업 기반이 2025년까지 제한되어 있어 어업권의 소멸위기로 생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었다.

하지만, 신안군은 장기민원인 흑산항내 양식시설물 철거와 관련하여 조건부 협의로 승인받은 해당 어촌계(진리1구, 진리2구) 어업권 총 12.8ha(축구장 18개 면적)를 대상으로 대대적 양식업권 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어업종사자와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통하여 양식업 손실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양식시설 매입조건으로 21여가, 양식가두리 964칸을 군비 100% 총 14억원으로 2년간 분할지급을 통하여 항내 양식활동 중단, 시설물 철거 등으로 그동안 양식시설들로 숨겨진 흑산도 관광의 비경을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지역민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2022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시

무안군은 8월 1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무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추진되며, 군은 모집공고를 통해 총 91명의 사업 참여자를 선발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76명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꽃길 가꾸기,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52개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는 15명으로 아동센터 학습지원, 향토전통 기술사업 등 6개 사업에 참여한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하절기에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폭염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고용회복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 개최

수교 30주년 기념...6~7월 참조기 등 560만 마리 방류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국 농업농촌부(부장 탕런젠)와 함께 지난달 29일 제4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방류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동으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중국 농업농촌부 마유상 부

부장, 박홍률 목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북항과 엔타이시에서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열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을 높이는 행사가 목포에서 열리게 돼 영광이다”며 “양국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류를 이어왔듯이 수산 분야에서도 상생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리 함께해요”

영광군-영광JC,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합동 캠페인 전개

영광군에서는 지난 28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정착을 위해 영광청년회의소(회장 박형진)와 합동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많아져 재활용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재활용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영광JC 회원과 도시환경과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상가 및 지역 내 시장에서 재활용



품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재활용 참여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